

주술술어문(主謂謂語句)의 어순 연구

申 美 燮*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2. 주술술어문의 유형 |
| II. 주술술어문의 개념과 유형 | III. 주술술어문의 어순 분석 |
| 1. 주술술어문의 개념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주술술어문(主謂謂語句)은 주어 - 술어로 이루어진 구(詞組)가 술어로 충당되는 문장을 가리킨다. 즉 대주어+대술어[소주어+소술어]로 구성된 문장을 가리키며, 통사적 차원에서 명명된 것이다. 19세기말 서양의 문법 개념이 중국에 전래된 이후, 중국인들은 자신의 언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술술어문이 서양의 인구어(印歐語)에는 없는 독특한 문장형식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주술술어문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중국어에 문법의 개념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논쟁과 연구의 대상되고 있다.

‘象鼻子長’과 같은 구문은 주술술어문의 대표적인 문장이다. 그런데 이 구문은 공교롭게도 우리의 이중주어문과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어의 문장의 배열 순서대로, 어떤 어순의 변환 없이, 그대로 ‘코끼리는 코가 길다.’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문을 영어로 바꾸어 보면

* 경북과학대학 강사

‘The trunk of an elephant is long’과 같이 중국어 및 한국어의 어순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는 같은 어순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중국어와 한국어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는 고립어이며, 단음절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한자어(sino-tibetan)계에 속하고 있으며, 성조를 가진 언어이다. 이와 반면 한국어는 교착어이며, 다음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성조가 없고 우랄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언어이다. 또한 어순의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SVO(주어-술어-목적어)의 어순을 한국어는 SOV(주어-목적어-술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언어학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두 언어에서 왜 주술술어문과 같은 언어형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본고는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의 어순 고찰을 통해 밝혀 보고자 한다.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의 생성 배경과 어순 규칙을 중국어의 기본 어순규칙에 근거하여 통사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고, 아울러 한국어의 이중주어문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동시에, 양 언어간의 번역 등에도 참고 하고자 한다.

II. 주술술어문의 개념과 유형

1. 주술술어문의 개념

앞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주술술어문은 주어 - 술어로 이루어진 구(詞組)가 술어로 충당되는 문장을 가리킨다. 즉 대주어+대술어[소주어+소술어]로 구성된 문장을 가리키며, 통사적 차원에서 명명된 것이다. 통사적 언어를 가진 서양의 문법 개념에 근거하여 명명된 주술술어문은 시대별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오다가, 70~80년대 통사의 차원이 아닌 화용의 차원에서 연구되면서 매우 획기적인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Li &

Thompson(1981:117)이 주술술어문을 주제(대주어)와 평언(소주어 + 소술어)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주술술어문은 주제와 주어를 모두 가지는 문장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다소간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湯廷池·曹逢甫·胡裕樹 등 많은 학자들이 모두 주술술어문을 주제 - 평언의 문장으로 분석하였고, 주술술어문을 단지 통사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없다는데 모두 공통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대두된 중국어학 연구 방법론인 삼개평면이론(三個平面理論)의 관점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은 주술술어문을 화용적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주제문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 역시 이 견해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주술술어문의 유형

주술술어문의 유형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양하여, 적게는 한 종류에서 많게는 7~8 종류까지 다양하다. 학자들 간의 서로 다른 견해에 관한 고찰은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이미 주술술어문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네 가지 유형¹⁾을 통해 주술술어문의 어순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他身体健康 그는 몸이 건강하다
- 2) 這個意思我懂 그 의미는 나는 안다.
- 3) 管理工作, 我是個外行. 관리 업무는 나는 문외한이다.
- 4) 他一口水都不喝.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각각의 유형은 대주어와 소주어의 의미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1)의 유형을 소속형(전체와 부분)으로, 2)의 유형을 수사형(受事型)으로, 3)의 유형을 관섭형(關涉型), 4)의 유형을 주편형(主遍型)으로 분류하여 고찰하

1) 《漢語語法專題研究》(2003: 172) 인용.

고자 한다.

(1) 소속형(所屬型)

- 5) 他身體健康(=1) 그는 몸이 건강하다.
- 6) 象鼻子長 코끼리는 코가 길다.
- 7) 山裡人本來就膽子小. 산 사람은 본래 담이 작다.

이와 같은 구문은 통사적인 구조상 가장 전형적인 주술술어문에 속하는 문장이다. 의미상으로는 이 유형의 구문은 대주어와 소주어 사이에 소속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주어는 대주어에 속하는 일부 분으로 대주어와 소주어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술술어는 내부적으로 비교적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유형의 구문은 주술술어문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어, 거의 모든 학자들에 의해 대표적인 주술술어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2) 수사형(受事型)

- 8) 這個意思我懂(=2) 이 의미는 나는 안다.
- 9) 這本書我看過了. 이 책은 내가 읽은 적이 있다.
- 10) 我買的那張畫人人都喜歡. 내가 산 저 그림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

이 예문들의 특징은 의미적으로 대주어가 소술어의 수사로 대주어를 전치빈어(前置賓語)로 보는 견해로 인해 논쟁이 많았던 구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유형의 대주어가 일반적인 주술문(主謂句)속에서 동사 다음에 위치하는 빈어[예를 들어 我懂這個意思]와 화용(語用)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문은 대표적인 주제문으로 주제와 평언의 구조를 이루는 주술술어문으

로 간주할 수 있다.

(3) 관섭형(關涉型)

- 11) 管理工作, 我是個外行 (=3) 관리 업무는 나는 문외한이다
- 12) 這些事, 領導上必會有個安排. 이 일은 지도에 있어서 반드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3) 中草藥他很有研究. 한약은 그가 연구했다.

이 구문의 특징은 대주어와 소주어의 의미상 관계가 비교적 멀어, 대주어가 의미상 시사도 아니고 수사도 아니나, 대주어는 대술어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대하여’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문 역시 외위어(外位語) 혹은 유리성분(遊離成分) 등등을 포함한 구문과 같이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양했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관점은 주제문의 유형으로 대주어는 주제가 되고 대술어는 평언의 구조를 보이는 주술술어문으로 보고 있다.

(4) 주편형(周遍型)

- 14) 什麼事他都走在前頭. 어떤 일에도 그는 앞장을 선다.
- 15) 什麼書他都看過. 무슨 책이든 그는 다 읽은 적이 있다.
- 16) 他一口水都不喝.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

주편형 주술술어문은 다시 대주어가 주편성인 것과 소주어가 주편성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대주어가 주편성인 14)의 문장은 사실상 의미상으로 관섭형과 같은 유형이고 15)의 문장은 수사형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또 16)의 예문은 소주어가 주편성 주어로, 많은 학자들이 빈어가 전치된 변형구문(變式句)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들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은 대주어 혹은 소주어가 주편성(周遍性) 주어라는 것이다. 朱德熙(1982)

와 陸儉明(1986)은 주편성 주어는 의미상 수사이지만 빈어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주어로만 충당된다고 주장했고, 또 朱德熙(1982)는 15)의 문장이 만약 전치된 빈어라면 다시 빈어의 위치로 환원할 수 있지만, 이 문장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구문은 모두 주술술어문으로 보았다. 한편 14)의 대주어는 관섭형과 마찬가지로 술어구에 대하여 의미상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구문들 역시 주제와 평언의 구조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제는 '한정성'과 더불어 주편성과 같이 '모두를 지칭하는'명사구로 충당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통해 주술술어문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나누어 보았다. 물론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른 여러 유형의 주술술어문이 존재하겠지만, 현재 통용되는 관점을 정리하면 이상의 4가지 유형의 주술술어문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유형을 토대로 주술술어문의 어순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 주술술어문의 어순(語順) 분석

주술술어문은 분명 통사적인 차원에서 명명된 것이다. 그러나 제 2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술술어문은 기본적으로 화용적인 측면에서 주제문이며, 유형에 따라 네 가지 나뉘었다. 그러면 주술술어문의 가장 큰 화용적인 특징인 주제와 평언의 구조를 가진 주제문의 어순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주제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 가운데 문두성(文頭性)과 기존성(既存性)은 가장 큰 특징 중의 일부이다. 담화에서 주제는 후행하는 서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를 한정해주는 틀(framework)의 기능을 한다.²⁾ 그러므로 주제는 언제나 문두(文頭)에 등장해야 한다. 이렇게

2) 정희자(1999:56) 인용

주제가 문두에 위치해야만 화자(話者)가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또 주제에 대해서 화자가 청자(聽者)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제는 기존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구정보(舊情報)와 관련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문요소를 정보량이 적은 구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정보량이 많은 새로운 정보(新情報)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순서로 배열하게 된다. 이것은 청자가 정신적 부담을 적게 받으며 전달되는 정보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자의 배려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제문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가 주제가 되어 앞에 출현하고 새로 알려줄 새로운 정보가 평언이 되어 뒤에 출현하게 된다.

한편 정보를 전달하는 각도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화자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가까운데서 먼 곳으로, 알고 있거나 안정적인 구정보에서 아직 알지 못하거나 변화가 많은 신정보로 옮겨 가는 경향을 가진다. 그래서 단어의 나열 순서에 있어서 문장 끝으로 갈수록 정보 내용은 새로워지고, 정보의 내용이 새로울수록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쉬워지며, 그래서 문장의 초점이 되기 용이해 지는 것이다. 초점(focus)란 문장이 표현하는 정보 가운데 설명의 중점을 두는 부분을 가리키거나 화자가 강조하려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화자가 문장 속에 들어 있는 많은 정보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 중에서 화자가 강조하여 설명하려는 정보는 초점이 되고, 청자가 그 강조하여 설명하려는 부분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배경(background)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인들의 자연적인 인지에 의해 형성된 초점을 자연초점(自然焦點 혹은 常規焦點)이라고 부르며, 중국어에서 자연 초점은 문장 끝의 단어에 위치해 있다. 이를 문말초점원칙(句末焦點原則)³⁾이라고 부른다.

자연 초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비(對比)초점은 화자가 동태언어 속에서 대비(對比)의 목적을 가지고 강조하려는 정보에서 나타난다. 대비하

3) 張鍊強(1997)

려는 항목은 문장 중에 그 어떤 성분도 모두 가능하며, 상하문 혹은 특정한 언어 환경 속에서 실재하는 한 항목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교제 쌍방이 공통으로 향유하고 있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대비 초점을 표현하는 형식은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그 대비의 초점을 액센트를 주어 말하는 등으로 충분히 두드러지게 말할 수 있지만, 서면어에서는 어떠한 표시를 사용해야만 대비초점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표기 단어의 사용하거나 어순의 변화 등 표기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예문은 주술술어문의 각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주술술어문의 각 유형은 모두 주제문의 특성을 가지면서 대주어 부분이 모두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구정보이고, 대술어 부분은 화자가 청자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신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他身體健康 → 他 (주제: 구정보), 身體健康 (형언: 신정보)
 這個意思我懂 → 這個意思(주제), 我懂 (형언)
 管理工作, 我是個外行 → 管理工作(주제), 我是個外行. (형언)
 什麼事他都走在前頭 → 什麼事 (주제), 他都走在前頭(형언)

이러한 주술술어문은 모두 주제화라는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袁毓林(1996)은 주술술어문이 서로 다른 주술문(主謂句)에서 주제화의 요구에 따라 파생되어 나온 문장 형태라는 가정 하에 주술술어문의 기저문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먼저 각 유형의 기저문의 어순을 먼저 살펴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주제화되었으며, 주제화를 통해 생성된 각 유형의 주술술어문의 어순과 특성 및 기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속형

이 유형은 기저문이 편정(偏正)구조를 가진 주술문이다.

- 17) 他的身體健康 → 他身體健康
 18) 小張的母親改婚了. → 小張 [他 母親改婚了.]

소속형의 경우 기저문의 주어는 편정(偏正)구조를 가진다. 他的身體, 小張的母親 등에서 중심어가 되는 명사는 명사의 배급 가격 원리에 따라 ‘누구의 혹은 무엇의’라는 명사의 주체를 필요로 한다. 이들 명사의 주체를 하급 빈어⁴⁾ 라고 할 때, 이러한 하급빈어는 종종 的과 함께 쓰여 1 가 명사와 편정구조를 이루는데, 이 편정구가 주술구의 주어가 됐을 때, 단지의 을 생략하면 주술술어구문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이 유형의 기저문을 편정구조를 가진 주술문으로 볼 때, 우선 수식어는 중심어 앞에 위치한다는 중국어의 기본적인 통사 어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가 부분 앞에 위치하는 戴浩一의 인지적 어순과도 합치되고 있다⁵⁾. 즉 身體는 他的 한 부분이 되므로 전체에 해당하는 他는 앞에 위치하고 그 부분이 되는 身體는 뒤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순 규칙은 매우 자연적인 어순 규칙으로 인국어 특히 영어로 번역했을 때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게 된다. 즉 예를 들어 17)의 구문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His body is strong.’과 같아 중국어의 어순

4) 袁毓林(1996)은 降級賓語라는 용어를 사용함
 5) 戴浩一(1988), (1989)은 중국인의 인지적 측면에서 중국어의 어순 규칙을 제시했는데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어순 규칙에는 (1) 전체는 부분 앞에 배열하는 원칙, (2) 시간순서원칙, (3) 정보중심원칙 등이 있다. 戴浩一은 인류가 시간과 공간을 감지하는 기본적인 방식에 기초하여 언어의 공통점을 탐색하였는데, 언어의 공통점은 인류의 감지 메카니즘과 물질세계가 서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자연적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 부분의 관계는 우리들의 감지 체계의 일부분인 동시에 언어의 보편 원칙이며, 시간순서관념 역시 인간이 가지는 물질세계에 대한 인식의 한 부분이며 언어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의 문법은 단지 굴절어라는 특징으로 인해 몇몇 문법의 원칙이 시간 순서의 원칙이나 전체와 부분의 원칙 등을 대신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언어가 서로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의미성 원칙(iconicity)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어는 그 어떤 언어보다 이 의미성 원칙을 강하게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인지에 가장 준하는 어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이 주제화 과정을 통해 的이 생략되고 주제문이 된 다음에는 영어의 어순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즉 他的身體健康的 주제문인 他身體健康을 영어로 번역해도 기저문의 영어 번역인 ‘His body is strong.’이나 ‘He has the strong body.’의 형태를 보여 중국어의 주술술어문과는 다른 형용사 술어문이나 동사 술어문의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Li & Thompson 등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피력한 중국어와 영어의 차이로, 중국어는 주제 중심의 언어인 반면 영어는 주어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이 유형의 기저문은 어떠한 이유에서 주제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자. 他的身體健康的 경우 이 문장의 초점은 健康이 된다. 그러나 주제화를 통해 형성된 他身體健康的 경우 초점은 身體로 옮겨지게 된다. 동태적인 문장을 통해 살펴보자.

19) 那楊小梅, 模樣兒長得俊, 什麼活都能幹, 心眼兒又挺好.

그 양소매는 외모도 잘생기고, 무슨 일이든 다 잘하며, 마음씨 또한 매우 좋다.

위 예문에서 대주어 那楊小梅는 주제이다. 대술어이며 평언 부분에 출현하는 소주어 중 模樣兒와 心眼兒는 모두 那楊小梅에 속하는 부분의 의미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的가 삭제되어 주제 - 평언의 형태를 이루었고, 이렇게 형성된 주제는 후행하는 3개의 절의 모두 주제가 되었으며, 이 주제는 연쇄적으로 평언의 담화의 틀의 역할을 하면서 평언 속의 각각의 소주어를 서로 대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模樣兒, 什麼活, 心眼兒이 대비초점을 이루면 주제 즉 구정보 那楊小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에 해당하는 那楊小梅는 주제가 되어 앞에 출현하고, 소속이 되는 소주어들은 대비를 이루며 뒤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수사형

수사형의 기저문이 동사술어문이다.

20) 我懂這個意思 → 這個意思我懂

21) 人人都喜歡我買的那張畫。 → 我買的那張畫人人都喜歡。

대주어가 수사성분인 이 유형은 빈어가 주제화의 요구에 따라 문두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유형은 빈어를 다시 원래의 위치에 환원한다면 중국어의 기본 어순인 SVO의 어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전형적인 문장형식은 중국인들의 공통된 인지심리의 표현이다. 중국어에서 주어, 빈어, 동사의 통사 어순은 일반적으로 SVO 혹은 SV이다. 주어와 시사성분 그리고 주제는 서로 부합되어 문장 머리에 출현하고, 빈어와 수사성분 그리고 자연초점은 서로 부합되어 문장 끝에 출현하는 것이 중국어의 전형적인 문장 형식이다. 이것을 중국어에서는 상규배위규율(常規配位規律)이라고 한다⁶⁾. 그러나 빈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성분을 전치하여 상규배위규율에서 벗어나 비상규배위규율(非常規配位規律)을 통하여 대비초점을 표현해냄으로써 특수한 표현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표현 기능은 화자의 수사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我懂這個意思의 구문의 경우, 我는 주어이며 시사성분이며 주제이고, 這個意思는 빈어이고, 수사성분이며, 자연초점이다. 그러나 빈어가 전치되어 這個意思我懂의 주술술어문이 되면, 這個意思가 수사주어가 되고, 주제가 되며, 我는 소주어가 되고, 대비초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사형 주술술어문은 화용적인 표현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어순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范曉(2001)는 빈어는 동사 앞에 올 수 있으며, 또 문두에 출현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빈어가 나타내는 것이 구정보가 된다면 빈어는 당연히 문두에 위치해 주제가 되는 것이 비교적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6) 范曉(2003: 347) 참조

한편 모든 동사술어문이 모두 이러한 어순의 변화를 통해 주술술어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사술어문은 동사가 일정한 조건을 가졌을 때 혹은 주어와 빈어가 일정한 조건일 때 빈어를 전치하여 주술술어문을 만들 수 있다.⁷⁾

이와 같이 수사성분이 전치되어 대주어가 된 주술술어문을 자연어순으로 보느냐 아니면 강조어순으로 보느냐는 학자들이 견해가 분분하지만, 본고는 시수관계가 분명하여 수사성분이 전치하여도 중국인의 인지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이 유형의 주술술어문은 분명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把자문이나 被자문처럼 현대 중국어에서는 격(格)을 표시하는 성분을 사용하여 어순의 전환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술술어문의 경우 어떤 표기사 없이도 어순의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중국인의 자연적인 인지에 바탕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중국어의 정보중심원칙과도 합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3) 관섭형

관섭형의 기저문은 개사를 삭제함으로써 주술술어문이 된다.

22) 關於管理工作, 我是個外行. → 管理工作, 我是個外行.

23) 他對中草藥很有研究 → 中草藥他很有研究

- 7) 예를 들면 동사는 대부분 동작동사로 빈어를 따로 떨어뜨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동사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屬於, 不如, 成爲 등 대부분의 관계동사는 빈어를 따로 떨어뜨릴 수 없으므로 빈어를 전치할 수 없다(예를 들어 通縣屬於北京 → ?? 北京通縣屬於). 또 두개의 유생명사가 동사 앞에 연달아 출현할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시사로 어떤 것을 수사로 분류할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빈어를 전치하여 주술술어문이 될 수 없다(예를 들어 小張見過小王 → ?? 小王小張見過 이와 같이 전적으로 어순에 의지하여 시사와 수사의 관계를 확정하는 주술문은 주술술어문이 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빈어가 전치되어 대주어가 되고 주어와 술어가 되는 수사형 주술술어문은 시수의 관계가 명확한 구문에서만 파생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袁毓林(1996) 인용

관섭형 주술술어문은 의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관섭형의 대주어는 대개 그 의미역이 계사(係事)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즉 술어부분의 동사와 아무런 연관을 맺지 않고 있는 것이다. 陳平(1994)은 문장 중의 계사성분은 동사와의 관계가 비교적 간접적인 명사성 성분으로, 선명한 원형특징이 결여된 의미성분이라고 이해했다⁸⁾. 따라서 계사는 주제에 충당되는 의미역의 우선 서열에서 가장 우선되는 의미역으로, 가장 주제가 되기 좋은 의미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성분에 우선하여 문두에 등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관섭형의 주술술어문은 술어동사와 계사의 관계를 형성하는 대주어가 주제가 되어 문두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袁毓林(1996)은 주제의 화용기능은 담화의 기점을 제공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각종 유형의 주제는 서로 다른 화용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⁹⁾. 여기서 우리는 관섭형 주술술어문의 경우, 계사

8) 陳平(1994)은 Dowty(1991)의 견해를 참조하여, 가장 기본적인 의미역할은 단지 원형시사(原型施事)와 원형수사(原型受事)의 두 가지 유형이며, 이 두 요소는 각기 다른 기본 특징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원형시사의 특징은 주로 ① 자주(自主)성 ② 감지(感知)성 ③ 사동(使動)성 ④ 이동(移動)성 ⑤ 자립(自立)성이고, 원형수사는 ① 변화(變化)성 ② 점성(漸成)성 ③ 수동(受動)성 ④ 정태(靜態)성 ⑤ 부용(附庸)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감사(感事)는 +감지성을 가진 의미역이며, 도구(道具)는 +사동성과 +이동성을, 지점(地點)은 +자립성과 +정태성을 대상(對象)은 +수동성, +점성성, 및 자립성을 가진 의미역이라고 인식했다. 그가 제시한 주제, 주어, 빈어의 삼중성분의 의미역 배열 원칙을 살펴보면, 주어와 빈어에 충당되는 의미역 우선 서열은 시사>감사>도구>계사>지점>대상>수사로 '>'의 오른쪽으로 갈 수록 주어로 충당되고, 왼쪽으로 갈 수록 빈어로 충당된다. 주제에 충당되는 의미역 우선 서열은 계사>지점>도구>대상>감사>수사>시사이다.

9) 예를 들어 시사, 당사(當事)등의 주체격(主體格)은 주제화를 거치지 않고도 문두에 위치하여 주어가 되는 무표기(無標記) 주제이며, 이러한 주제는 평언부분에서 전달하는 신정보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시간, 처소 등의 환경격은 단지 주제화를 거쳐야 만이 문두에 등장해 대주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주제의 기능은 평언부분의 진술을 위해 시공(時空)측면의 하나의 참고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사, 계사, 여사, 공구 등의 의미격은 단지 주제화를 거쳐 문두의 주어가 되는 유표기 주제가 되며, 그 기능은 의미 대비의 작용을 가진 주제가 청자가 관심을

를 동반하고 있던 기저문이 개사 삭제를 통해 주제문의 형태를 가진 주술술어문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 (關於管理工作, 我是個外行. →管理工作, 我是個外行) 袁毓林(1996)에 따르면, 관섭형 주술술어문의 대주어[管理工作]를 비롯하여 주술술어문은 대주어는 일반적인 주술구의 어떤 성분 [예를 들어 개빈구 關於管理工作 등]이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화용요소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전체 문장의 주위의 중심이 되거나, 대비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동태적인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4) 他們來挖土鏢根的時候, 我臉上笑着, 心理却在哭. 그들이 와서 땅을 파고 뿌리를 깎을 때, 나는 얼굴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도리어 울고 있었다.

25) 那時候, 他已經詩興不作而研究志趣正濃 그 때 그는 이미 시흥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연구 의지는 왕성했다.

위의 두 예문에서 ‘臉上’과 ‘心理’ 그리고 ‘詩興’과 ‘研究志趣’는 의미상으로 서로 대비의 작용을 하면서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는데 상호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의미역을 가진 주제가 동시에 출현할 때는, 각자 표현 기능에 있어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문두로 가까이 갈수록 의미의 통합관할의 기능이 강하여, 후속 문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문말에 가까이 갈수록 의미 대비의 기능이 강하며, 후속절 가운데 그것과 대비를 이룰 수 있는 항목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다. 袁毓林은 Xu & Langendoen(1985)을 인용하여 5가지 의미 성분은 나름의 배열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여러 유형의 의미격이 문두의 위치에 동시에 출현할 경우, 주제격이 가장 동사구(VP)와 가까이 있으며, 객체격은 주제격 앞에

기울이는 주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등장하며, 하급빈어는 그 지배 성분 앞에 위치하며, 환경격과 공구격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6) 這麼油膩的碗凉水我可洗不了.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그릇은 찬물로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다.

위의 예문의 술어 동사는 洗이고 주체격인 我是 술어동사 가장 가까운 위치에 등장하고 비교적 위치가 자유로운 도구격 凉水가 그 앞에 나타나며 동사의 수사인 碗은 객체격으로 그 앞에 나타난다. 또 碗의 수식성분이 되는 하급빈어 這麼油膩的는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태적인 문장 안에서 여러 개 주체가 동시에 등장할 때에는 일정한 공식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袁毓林(1996)의 설명에 근거하면, 본고에서 다루는 4가지 유형의 주술술어문의 의미 배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태적인 문장에서 등장하는 범위가 확대된 주술술어문(예를 들면 這事儿我現在腦子里一点印象也沒有了)의 의미 어순에 적용될 수 있다.

(4) 주편형

주편형 주술술어문의 특징은 다시 주술구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주술구의 주편성빈어가 주제화하여 주술술어문의 주편성주어가 된 다음에는, 동사 술어 앞에 총괄을 나타내는 부사 ‘都(혹은 也)’가 삽입되어 서로 호응을 강조하게 되며, 의미지향에 있어 전지성(前指性) 부사가 문두의 주편성 성분의 후치를 지지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파생되어 나온 구조는 세밀한 조정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의 기저 형식으로 되돌아 갈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范曉(2001)는 빈어가 동사 앞에 전치하는 상황 가운데, 통사적인 강제성이 빈어를 반드시 동사 앞 혹은 문두에 출현하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10) 袁毓林(1996) 참조

이러한 유형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가. 빈어 자체가 의문 대사로 충당된 것이거나 혹은 의문대사 + 명사로 된 한정어로 뒤에 ‘也, 都’등이 나와 서로 호응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27) 他什麼都不懂. 그는 아무 것도 모른다./ 我什麼事都不知道.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나. 빈어 앞에 ‘一’이 있고 뒤에 부정사(不/沒有)가 있어서 ‘~ 也(都) 不(沒有)~’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 예를 들면

28) 他一個人都不認識. 그는 한사람도 알지 못한다./ 一句話他都沒說. 한마디도 그는 말하지 않았다.

다. 빈어가 다수를 나타내고, 뒤에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 ‘都’가 있는 문장 예를 들면,

29) 這些問題都研究過了. 이 문제들은 모두 연구한 적이 있다.

라. 대칭의 격식을 지닌 문장 중의 몇 가지 예를 들면

30) 她飯也不吃, 覺也不睡, 身體要垮的.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아 몸이 쓰러질 지경이다.

마. 형식 동사(進行, 加以 등)로 구성된 몇몇의 문장 예를 들면

31) 這個問題我們正在進行討論. 그 문제는 우리들이 마침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 這件事你們必修加以解決. 이 일은 너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상의 문장들 가운데 동사 앞의 빈어는 지칭성에 있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와 ‘마’의 빈어는 언어 환경 중에 어떤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것[定指]이며, ‘가’와 ‘나’의 빈어는 주편성을 가지며¹¹⁾

11) 范曉(2001)는 任指 혹은 遍指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라’의 예문의 빈어는 가리키는 사물이 전체가 한 종류의 사물이 되는 것 [通指]으로, 이러한 문장에서 빈어는 동사 뒤에 올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주술문이 모두 주술술어문으로 파생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주술술어문이 모두 주술문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주편형 주술술어문은 이미 范曉의 설명처럼 통사적인 강제성에 의해 고정화된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편성 구문은 대주어 혹은 소주어가 ‘예외 없이 모두 다’와 같이 전량외(全量義)를 가지는데 이것은 즉 가리키는 범위 내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장 중에 강제성을 가진 대비 약센트는 문장의 대비 초점이 된다. 그 대비항목은 문장 중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이 대비항목은 담화 가운데 혹은 교제 쌍방이 공통으로 인가하는 어떤 범위 내에 있는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주편성 주술술어문은 이러한 대비초점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고정격식이다. 따라서 중국어의 문장 가운데 대비초점을 강조하는 구문에서는 반드시 주술술어문과 같은 문형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IV. 맺는 말

주술술어문은 특수한 형식의 구문이지만, 중국어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본형식이다. 주술술어문의 어순을 중국어의 기본 어순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사(修辭)나 화용의 필요에 의해 생성된 임시 어순으로 보느냐는 보다 심도 있는 관찰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주술술어문이 비록 주술문의 파생에 의해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동태적인 문장 안에서 주술술어문은 분명 특수한 표현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혹은 어순이 배열되어진 합법적인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주편성 주술술어문과 같이 이미 고정화되어 다른 어떤 구문으로도 주편성 주술술어문과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것

이다. Li & Thompson(1976)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중국어를 주제중심(topic - prominent) 언어라고 규정하고, 그 증거로 삼은 구문이 바로 주술술어문이다. 이와 같이 가장 주제문의 형태를 보이는 주술술어문은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구문인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통사 상 주어뿐 아니라, 빈어, 상어, 시간사, 공간사 등등이 모두 주제가 되어 문두에 출현하는 것을 실제적인 문장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보량이 적은 구정보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대화 쌍방에게 흥미거리가 되는 신정보로 옮겨가는 주제문의 어순은 중국인들의 인지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인 인지에 기초한 구문이 바로 주술술어문인 것이다. 따라서 주술술어문이 비록 파생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인의 인지에 기초한 기본 구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술술어문의 어순 역시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어순인 것이며 어쩌면 가장 중국인에 기초한 어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이중주어문도 중국인들의 주술술어문에 대한 인지와 유사한 기초에서 생성되었지만, 여러 가지 언어적 차이로 인해 중국어의 주술술어문 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구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은 차후에 기대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정희자, <주제에 관하여>, 《외대어문논집》 제 9집, 부산외국어대학교, 1993.
- 정희자, 《담화와 문법》, 한신출판사, 서울, 1999.
- 신미섭, <현대 중국어의 주술술어문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孟維智, <試論主謂語句的特點>, 山西大學學報, 第 2期, 1983.
- 吳爲章, <語序重要>, 《中國語文》 第 6期, 1995

- 袁毓林, <話題化及相關的語法過程>, 《中國語文》第4期 1996.
- 范 曉, <關於漢語的語序問題>, 《漢語學習》第6期 2001.
- 范 曉 等, 《語法理論綱要》, 上海譯文出版社, 2003.
- 張鍊強, <漢語語序的多面考察>, 《首都師範大學學報》社科版 第5期 1997.
- 汪洪瀾, <主謂謂語句研究綜述>, 《語言文字學》第9期 1995.
- 陸儉明, <周遍性主語句及其他>, 《中國語文》第3期 1986.
- 張旺熹, <主謂謂語結構的語義模式>, 《世界漢語教學》, 1993. (《漢語特殊句法的語義研究》,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재수록, 1999).
- 曹逢甫, 《主題在漢語中的功能研究--邁向語段分析的第一步》, 語文出版社 1995
-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 (《현대중국어법론》허성도 譯 사람과 책, 1997)
-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國外語言學》, 第1期 1988.
- 戴浩一, <以認知爲基礎的漢語功能語法芻議>(上)(下), 1989. 叶蜚聲譯, 《國外語言學》1990年 第4期, 1991年 第1期
- 謝信一, <漢語中的時間和意象>, 1989. 叶蜚聲譯, 《國外語言學》, 1991年 第4期
- 陳 平, <試論漢語中三種句子成分與語義成分的配位原則>, 1994. 《中國語文》第3期(《中國語 語順研究》, 한국중국어언어학회 譯1998), 송산출판사, 서울, 재수록)
- 邵敬敏 外, 《漢語語法專題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 한국중국어언어학회 역, 《中國語 語順研究》, 송산출판사, 서울, 1998.
- Dowty, David(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 n>, Language 67(3)
- Li, C.N & Thompson S.A.(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Subject and Topic》, Edited by Charles N, Li (1976), Academic Press.(李谷城 摘譯1984),

- <主語與主題 一種新的語言類型學>, 《國外語言學》, 第2期
- Xu, Liejong & D. Tenrence Langendoen(1985) Topic Structures in Chinese, Language, Vol.61, No.1.
- Li & Thompson, 《표준 중국어 문법》, 박정구 외(1996)수정판, 서울: 한울아카데미, 1981.
- 《언어학 사전》, 이정민·배영남·김용석 공저, 개정판, 박영사, 2000.
- 《現代漢語知識大辭典》, 高更生 等 主編(1992), 山東教育出版社, 1992.
-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David Crystal Blackwell Publishers Ltd, 1997. (《現代語言學辭典》, 沈家煊譯(2002), 商務印書館 北京)

<中文提要>

主謂謂語句是由主謂短語來充當的句子, 即是由‘大主語+大謂語’‘小主語+小謂語’來構成的句子, 從句法的角度命名為主謂謂語句。關於主謂謂語句的類型, 學者們的說法多種多樣。以大主語和小謂語的語義關係為標準, 可以分為: (1) 所屬型、(2) 受事型、(3) 關涉型、(4) 周遍型。根據以上的四個類型, 本文中, 首先在語用上把主謂謂語句都規定為主題句。因為主謂謂語句一般被認為是主謂句以話題化的要求派生出來的句型。因此, 首先要闡明主謂謂語句的基底句, 然後通過考察基底句的語序形成話題化的過程, 分析主謂謂語句所具備的語用作用。我認為, 通過這個過程 主謂謂語句中將得到基底句不具備的對比焦點, 而且為實現對比焦點進行語序變化和介詞及結句助詞的刪除。但是以這種語用要求通過語序變化及刪除的過程形成的主謂謂語句, 即符合情報中心的原則及中國人一般遵守的認知基礎。即使通過派生的過程而形成主謂謂語句, 是在中國人普遍認知基礎上構成的基本句型。

주제어: 所屬型, 受事型, 關涉型, 周遍型, 話題化, 派生